

국내 간호전문직관 연구 주제 동향: 텍스트네트워크분석과 토픽모델링의 융합

박찬숙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rends in the Study of Nursing Professionals in Korea: A Convergence Study of Text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Chan-Sook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전문직관 연구 주제 동향을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학술논문수집, 단어 정제 및 추출, 자료 분석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351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영문초록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텍스트네트워크를 개발하였고, 네트워크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융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 주제는 간호사, 간호전문직관, 간호학생, 간호, 전문직자아개념, 보건의료인, 만족, 임상역량, 자기효능감 등이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간호사 전문직관, 간호학생 전문직관, 간호전문직 정체성, 간호역량의 토픽그룹을 파악하였다. 시간이 흘러도 핵심 주제는 변화가 없었지만, 1990년대 역할갈등, 윤리적 가치, 2000년대 셀프리더십, 사회화, 2010년대 임상실습스트레스, 지지체계와 같은 주제들이 부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임상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었으나, 간호전문직관 형성 및 향상에 효과적인 다차원적인 중재 전략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융합, 간호사, 간호학생, 간호전문직관, 텍스트네트워크분석, 토픽모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end of nursing professional research topics published domestically through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 method performed procedures for collecting academic papers, refining and extracting words, and data analysis. A text network was developed by collecting 351 papers and extracting words from the abstract, an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performed. The core-topics were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nursing care, professional self-concept, health care professionals,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Through topic modeling, topic groups of nurse's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ism, nurs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nursing competency were identified. Over time, core-topics remained unchanged, but topics such as role conflict and ethical values in the 1990s, self-leadership and socialization in the 2000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upport systems in the 2010s have emerg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al research to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of clinical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onvergence, Nurse, Nursing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Text network analysis, Topic model

*Corresponding Author : Chan-Sook Park(sook706@sangji.ac.kr)

Received June 14,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July 13,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간호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간호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그리고 간호사가 전문가로서의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간호의 결과를 인정받으면서 형성되는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은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에 반영된다. 즉 간호전문직관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하겠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신념이나 태도로 정의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며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2]. 간호사가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려는 경향을 가질수록 질 관리 활동과 같은 전문직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 환자 돌봄의 질이 향상된다[3]. 이처럼 간호사가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향상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는데 필수적이다.

간호전문직관이 환자 간호의 질에 영향을 주고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면서 간호전문직관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가 낮았고, 재직의도(retention intention),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간호수행능력은 높았다[4,5]. 간호학생은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고[6], 남자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7]. 한편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를 고찰하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전문간호역량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사회적 책무, 윤리적 간호실무, 리더십, 환자안전관리, 전문성강화의 영역이 주로 연구되었음을 파악하였다[8]. 이처럼 다양한 학술지에 많은 양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전문직관 연구의 주제 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미 발표되었던 선행연구들의 주제 동향을 조망하는 것은 관련된 간호지식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9]. 따라서 간호전문직관 연구의 주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지식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간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호전문직관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간호전문직관 관련 연구들을 웹 데이

터베이스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계량적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텍스트 분석 방법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다. 언어네트워크, 의미연결망, 키워드네트워크 등으로도 불리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은 많은 양의 학술문헌을 수집하여 주제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간호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0,11]. 최근에는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제그룹을 확인하여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결과를 명료화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기법을 적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 LDA는 말뭉치(corpus)생성 확률모델이다. 즉 말뭉치 안에 위치한 단어들 간의 관계(어떤 단어가 있는지, 다른 어떤 단어와 자주 맥락적 의미를 가지고 출현하는지)를 찾아내고, 그 값을 측정함으로써 잠재된 맥락을 드러낸다[14]. 수학적으로는 단어* 문서 형태의 2원모드행렬을 만들고, 행렬인수분해, 밀도 확률을 계산하여 토픽을 찾아낸다. LDA는 대량의 문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데, 문서를 각 토픽에 대한 분포로 표현한다[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전문직관 연구 주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제들 간의 의미구조,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한다. 그리고 토픽모델링 결과 발견된 토픽그룹과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결과를 융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계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대상 텍스트로 추출하여 텍스트네트워크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양적 내용분석이다. 연구절차는 학술논문수집, 단어 정제 및 추출, 자료분석 방법은 텍스트네트워크분석,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2.1 연구절차

2.1.1 학술논문수집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간호전문직관 관련 연구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학술논문 검색서비스(e-article)을 선정하여 2020년 9월19-20일 동안 집중적으로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어는 “간호 AND 전문직”, 검색 영역은 “전체”로 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검색 영역 제한 기능을 활용하여 의학학 또는 복합학 또는 간호학 분야, 학술지논문(articles), 영어와 한글을 지정하였다. 최종 검색 결과 RISS 293편, KISS 194편, KCI 256편, e-article 145편, 총 888편을 서지정리 소프트웨어 EndNote™(ver.8.1)에 내보내기 한 후 수집된 논문 목록에서 중복논문 324편, 영문 초록이 없는 논문 72편, 제외범주에 해당되는 논문 141편, 총 213편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모두 351편이었으며 논문 수집 및 선정과정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제외 범주는 본 연구목적과 무관하거나(예: 노동시장 조사, 전문간호사 자격, 간호역사 등), 간호학 외의 분야(예: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분석에 포함된 논문 출판 시기는 1990년부터 2020년이였다.

2.1.2 단어 정제 및 추출

분석대상 논문의 서지정보에서 영문초록을 엑셀로 정리한 후 NetMiner 4.4.3. 프로그램[16]을 이용하여 단어 추출을 수행하였다. NetMiner 프로그램은 비정형 텍스트인 초록에서 형태소 분리가 가능하다. 단어를 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형태소 분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유의어(thesaurus), 지정어(defined word), 제외어(exception word) 목록을 정리하였다. 유의어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저자에 따라 달리 사용된 단어구 또는 단어로서 대소문자, 단수와 복수, 하이픈 유무 등을 통일하였다. 가령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selfconcepts, professional attitude, job identity, nursing identity”등의 단어들을 대표하여 “professional self-concept”을 유의어 목록에 등록하였다. 지정어는 “self-efficacy,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job stress” 등 하나의 의미로 표현되는 단어구이다. 제외어는 의미 해석에 혼동을 주는 증의적 표현의 단어 “factor, programs, score, behavior, development, research”등과 본 연구목적과 무관한 통계 용어 “correlation, content analysis, questionnaire, survey, SPSS win, regression” 등이다.

단어정제과정을 거쳐 추출된 단어는 1,965개로, 출현 빈도 범위는 1-938회였다. 1회 출현 단어가 1,180개(60.1%), 2회 출현 단어 265개(13.5%), 3회 출현 단어 117개(6.0%), 4회 출현 단어 76개(3.9%), 5회 출현 단

어 49개(2.5%)로 5회 이하 출현한 단어들이 1,687개(86%)였다. 6회 이상 출현단어는 278개(16.2%), 10회 이상 출현 단어는 194개(11.9%)로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해석과 시각화된 지도의 가시성을 고려하여 10회 이상 출현 단어를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덜 정제된 단어 98개를 삭제하고 96개의 단어를 텍스트네트워크분석에 이용할 단어로 선정하였다. 이들 단어들을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동시출현 행렬을 구성할 키워드로 부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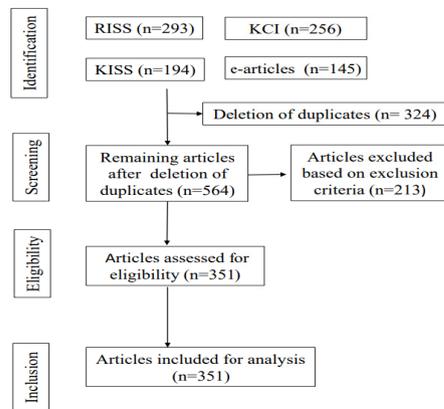


Fig. 1.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PRISMA flow diagram)

2.2 자료분석방법

2.2.1 텍스트네트워크분석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 1원모드행렬(co-occurrence 1-mode network)을 개발하기 위해 NetMiner 프로그램에서 “Create semantic network(word distance)” 메뉴를 이용하였다. 동시출현 단위는 문장(sentence)으로,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개의 키워드가 서로 붙어 있거나 하나의 키워드를 건너서 출현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window size=3”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바로 근처에 인접한 키워드 간에 연결관계가 가중치로 나타나는 행렬을 개발하였다. 또한 연결관계 값의 역치(link frequency threshold value)를 2이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회 이상 인접할 때를 동시출현관계로 인정하였다. 키워드 간 동시출현 네트워크에서 방향성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무방향성 네트워크를 선택하였고, 자기상관루프(self-loop)가 제거되도록 하였다[17].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1원모드행렬은 키워드 95개, 연결선 506개로 구성되었고, 논문 351편의 영문초록에서 추출된 문장

수는 2,338개였다.

개발한 키워드 간 동시출현 1원모드행렬을 이용하여 연결정도(degree)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위해 연결관계 값 상위 30%만 포함하도록 연결선을 감소시킨 후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미연결망을 시각화하기 위해 스프링지도를 보면서 고립된 키워드를 제외한 54개 키워드로 의미연결망을 개발하여 Fig. 2에 제시하였고, 연결중심성 값 상위 30개 키워드를 정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3개 구간을 구분하여 키워드 간 동시출현 행렬을 각각 개발하였다. 각 시기별로 연결중심성 값 상위 25개 키워드를 비교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2.2.1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을 위해 NetMiner 프로그램 “텍스트마이닝” 메뉴에서 “LDA”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앞에서 개발한 키워드*문장 형태의 2원모드 행렬을 이용하여 Monte Carlo Markov Chain (MCMC) 학습방법을 선택하였다. 여러 차례 모의 분석을 수행한 후, 알파 값 2.0, 베타 값 0.5, 반복계산(iteration) 1000회, 토픽 수 4개로 설정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12]. 각 토픽에 할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장의 확률 분포와 토픽그룹별 키워드를 나열하고, 토픽그룹의 이름을 명명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픽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개발한 토픽*키워드 형태의 2원모드행렬을 시각화한 연결망 지도를 Fig. 3에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출판기간을 살펴보면 1990-1999년 14편, 2000-2009년 37편, 2010-2020년 300편으로,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27편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술지 분포는 한국간호행정학회지(46편), 한국간호교육학회지(40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6편), 디지털융복합연구(23편),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22편), 기본간호학회지(16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12편), 대한간호학회지(12편), 한국융합학회 논문지(11편) 이었고, 10편 이하의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는 동서간호학연구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가정간호학회지,

보건정보통계학회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키워드 간 동시출현 행렬의 특성은 네트워크의 밀도 0.11, 연결정도 범위 1-72, 평균연결정도 10.6이었다. 이는 키워드들이 평균 10.6개의 다른 키워드와 동시출현하고 있으며, 연결관계가 가장 많은 키워드는 72개의 다른 키워드들과 동시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2 간호전문직관 연구의 주제동향

3.2.1 핵심 연구주제

Table 1을 보면 연결중심성, 연결정도, 출현빈도 모두에서 1위는 간호사(nurse)였다. 연결중심성 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2위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 3위 간호학생(nursing student), 4위 간호(nursing care), 5위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 6위 보건의료인(health care professionals), 7위 만족(satisfaction), 8위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e), 9위 자기효능감(self-efficacy), 10위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이었다. Fig. 2에서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간호사(nurse)-직무만족(job satisfaction)-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간호사(nurse)-간호학생(nursing student)이 굵은 연결선으로 보인다. 이 외에 간호사(nurse)-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간호(nursing care)-간호사이미지(nurse image),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전문직 자율성(professional nurse autonomy),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 간호사(nurse)-윤리적 가치(ethical value)-지각(perception) 등을 볼 수 있다.

간호학생은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전공만족(major satisfaction)-임상실습(clinical practice)-만족(satisfaction),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행복(happiness),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임상실습(clinical practice)-임상실습스트레스(clinical practice stress) 등과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자기효능감(self-efficacy)-자긍심(self-esteem),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의사소통(communication)-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 등의 의미구조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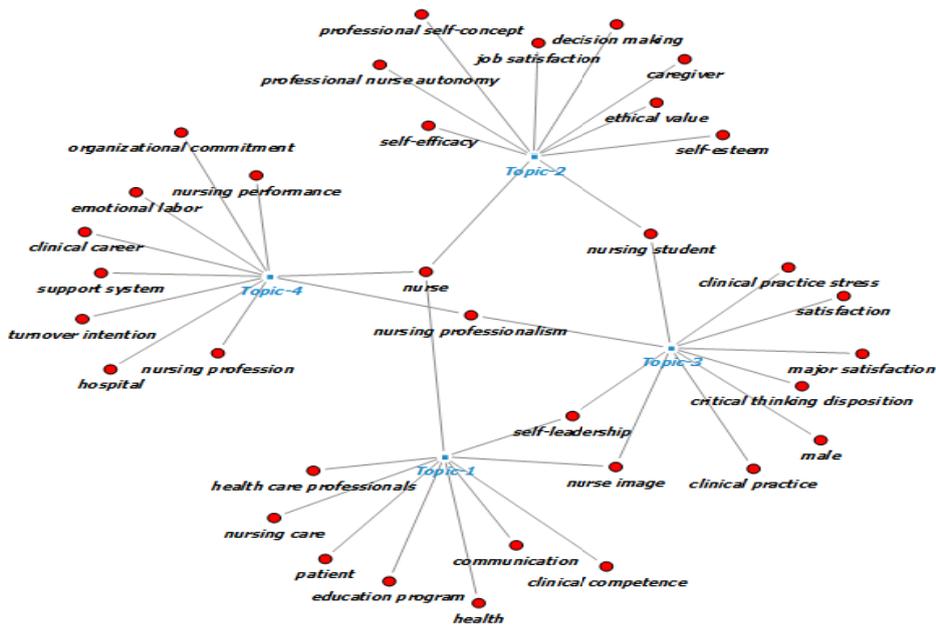


Fig. 3. Topic group network by topic modeling

3.2.2 시간에 따른 주제 동향

Table 2를 보면 시기와 상관없이 핵심 주제들은 지속적으로 상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시기에 따른 변화도 분명하였다. 예를 들어 전문직 자율성(professional nurse autonomy)이 1990-1999년에는 7위였지만 2000년 이후 22위권 밖으로 떨어졌다. 또한 1990-1999년에는 18위였던 간호학생(nursing student)은 점차 순위가 상승하여 2010-2020년에는 5위가 되었고, 1990-1999년에 25위였던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도 2010-2020년에는 3위로 상승하였다. 한편 해당시기에만 보이는 주제에는 1990-1999년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 신체적(physical), 간호교육(nursing education), 윤리적 가치(ethical value), 역할갈등(role conflict), 자긍심(self-esteem), 동기(motivation), 2010-2020년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정신건강(mental health), 성격유형(personality type), 사회화(socialization), 2010-2020년 임상실습스트레스(clinical practice stress), 지지체계(support system), 임상경력(clinical career), 훈련(training), 의료(medical) 였다.

3.2.3 토픽모델링 결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Topic 1은 간호역량, Topic 2

는 간호전문직 정체성, Topic 3은 간호학생 전문직관, Topic 4는 간호사 전문직관으로 명명하였다. 각 토픽그룹의 5번째까지의 키워드를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의 연결망지도에서는 더 많은 키워드를 볼 수 있다. 간호역량 그룹은 간호(nursing care), 환자(patient), 보건의료인(healthcare professionals),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e), 의사소통(communication), 건강(health), 교육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등, 간호전문직 정체성 그룹은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긍심(self-esteem),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윤리적 가치(ethical value), 의사결정(decision-making) 등, 간호학생 전문직관 그룹은 임상실습(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스트레스(clinical practice stress),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전공만족(major satisfaction), 임상실습(clinical practice), 만족(satisfaction), 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등, 간호사 전문직관 그룹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 지지체계(support system), 임상경력(clinical career), 감정노동(emotional labor), 병원(hospital), 간호수행(nursing performance) 등이 연결되어 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0-2020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되었던 간호전문직관 연구논문 351편을 수집하여 텍스트네트워크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주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영문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분석하여 핵심주제와 의미구조연결망,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였고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키워드를 대표하는 4개의 토픽그룹을 발견하여 각 그룹을 명명하였다.

이처럼 텍스트네트워크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발견된 분석결과를 융합함으로써 토픽그룹을 구분하고 핵심주제와 의미구조를 명료화 할 수 있었다. 30년 동안 장기간 다양한 학술지에 발표되었던 많은 양의 연구논문을 양적으로 내용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간호전문직관 지식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먼저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전문직관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간호사가 가장 많았고, 2010년대부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전보다 더욱 많이 발표되었다. 핵심적으로 연구되었던 주제는 간호전문직관, 간호, 전문직자아개념, 만족, 임상역량,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등이었다. LDA 토픽모델링 결과 발견된 토픽그룹은 각각 간호사의 전문직관, 간호학생의 전문직관, 전문직 정체성, 간호역량으로 명명되었다. 시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0년 단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연결중심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핵심 주제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일부 주제들은 시기별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초록 텍스트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 간호사의 전문직관 토픽그룹에 포함되는 문장들이 3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도 간호사,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고, 노드 크기가 컸고 연결선도 굵게 나타났다. 두 가지 분석방법을 융합함으로써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 영역임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양적내용분석 방법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유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Fig. 3은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융합하여 시각화한 연결망지도로 각 토픽그룹에 속하는 하위주제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1990-2020년의 시간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전문직관 연구의 핵심 주제는 병원간호

사의 간호전문직관,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 등이었다. 가령 상당수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이직의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감정노동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이직의도를 증가시켰음을 보고하였다[18-20]. 간호사의 이직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하며 좋은 간호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이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직의도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의 이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업무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 경직된 병원조직 문화, 태움과 같은 동료간호사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21].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자율성과 강한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어 임상에서 간호사로서의 자율성도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국내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간호전문직관과 상호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하였지만, 전문직관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 효과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한편 임상세팅에서 필요한 간호전문직관의 주요 범주에는 윤리적/법적 이슈, 근거기반실무, 연구결과 활용능력, 다학제간 전문가들의 협력증진, 환자중심 돌봄, 조직의 리더십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22],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 환자중심간호, 근거기반실무, 다학제간 협력 능력, 간호 조직의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양질의 간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간호학생의 전문직관 토픽그룹에는 전공만족,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간호사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이들 주제들이 핵심주제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령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은 전공만족, 간호사이미지, 임상실습 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23-25]. 간호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에 집중하므로 미래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을 보인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사회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들부터 간호에 대한 기존의 획일화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간호학생 개인을 존중하며 개방적인 교육 태도가 필요하다[26]. 또한 개별 학생들이 전공과 임상실습에서의 만족을 높이고, 즐거운 간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에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을 증진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현장, 국가의 정책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전문직 정체성 토픽그룹은 자기효능감, 자율성, 전문직 자아개념, 자긍심, 직무만족 등이 핵심주제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기효능감이었고[27], 간호사의 자긍심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28]. 한편 간호역량 토픽그룹은 임상역량,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등이 핵심주제였다. 예를 들면 임상역량은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등의 요소들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29-31]. 최근에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에게 임상역량,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치료팀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22]. 대학교육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다학제간 교육 경험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왔다[32]. 본 연구결과 간호전문직 정체성과 간호역량이 명료하게 구분되는 토픽그룹으로 나타났고 각 그룹에 속하는 하위주제들이 주요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향후에도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그 영역이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간 흐름과 상관없이 핵심주제들은 꾸준히 연구되었고 일부 주제들은 변화가 뚜렷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제 변화를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 연구는 2010년 이후에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동안 간호연구자들이 내·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간호전문직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해왔다고 평가된다. 가령 1990년대는 역할 갈등이 주목했던 연구주제였는데, 역할 갈등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병원을 떠나게 하는데 영향을 미

친다. 간호사가 역할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로는 학교에서 배운 간호이론과 임상현실의 차이, 병원에서 간호전문직의 자율성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4]. 그러나 복잡해진 병원 환경 속에서 임상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2000년대 이후 역할 갈등보다는 간호학생이나 간호사가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셀프리더십, 사회화와 같은 주제들이 주목 받았다[33,34]. 2010년대는 간호대학의 간호학생 수가 팽창하면서 충분한 임상실습 기관 확보, 임상실습의 내용 및 평가방법, 임상실습지도자의 자질 등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3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과 스트레스가 더욱 주목 받게 된 주제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문헌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문헌을 수집하여 주제 동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의 장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한다면 간호지식체 현황을 더욱 풍부하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간호전문직관 연구는 간호사 대상 연구들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간호학생의 전문직관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졌다. 핵심 주제는 간호사, 간호학생, 전문직 자아개념, 만족, 임상역량, 직무만족, 셀프리더십, 간호사 이미지, 의사소통,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율성, 이직의도 등의 순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호전문직관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월등히 그 양이 증가했지만, 간호실무에서 간호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지체계 개발이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사회적으로 간호사이미지를 향상하고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강화를 위한 중재 방안을 다차원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최근에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관심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특히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임상실습이 중단되거나 제약받는 등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교육전략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R. Kang & J. H. Park. (2002). Concept analysis of

- the role in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3), 431-439.
- [2] M. H. Nam & Y. C. Kwo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s to leav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417-427.
- [3] K. M. Lombarts, T. Plochg, C. A. Thompson & O. A. Arah. (2014). Measuring professionalism in medicine and nursing: results of a European survey. *PLoS One*, 9(5), e97069.
DOI : 10.1371/journal.pone.0097069
- [4] M. H. Hwang, S. J. Jeon & B. Y. Chung. (1998). A correlational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9(2), 518-532.
- [5] M. H. Sung & E. Y. Choi.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intention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19(2), 244-252.
- [6] E. S. Lee & M. S. Park. (2017).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 311-320.
DOI : 10.14400/JDC.2017.15.1.311
- [7] M. J. Yoo & H. J. Kim. (2018). The effects of learning attitude and major satisfac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8), 867-883.
DOI : 10.22251/jlcci.2018.18.8.867
- [8] J. S. Kang, E. M. Kim, I. Y. Lee & M. R. Lee. (2020). The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in the nursing thesi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257-279.
DOI : 10.22251/jlcci.2020.20.14.257
- [9] S. K. Lee, S. Jeong, H. G. Kim & Y. H. Yom. (2011).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research topics in Korean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5), 623-632.
DOI : 10.4040/jkan.2011.41.5.623
- [10] S. S. Lee. (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DOI : 10.3743/KOSIM.2014.31.4.049.
- [11] E. J. Park, Y. J. Kim & C. S. Park. (2017). A comparison of hospice care research topic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using text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5), 600-612.
DOI : 10.4040/jkan.2017.47.5.600
- [12] S.S. Lee. (2016).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opic modeling for the book report tex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18.
DOI : 10.16981/kliss.47.201612.1
- [13] J.S. Choi & Y.G. Kim. (2019). A study on research trend for nurses' workplace bullying in Korea: focusing on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8(4), 221-229.
DOI : 10.5807/kjohn.2019.28.4.221
- [14] D. M. Blei, A. Y. Ng & M. 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3), 993-1022.
- [15] Cyram. (2018). *NetMiner 4.4 module reference*. Seoul: Cyram Inc.
- [16] Cyram. (2021). *NetMiner version 4.4.3*. Seoul: Cyram Inc.
- [17] C. S. Park. (2019). Using text network analysis for analyzing academic papers in nursing.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6(1), 12-24.
DOI : 10.16952/pns.2019.16.1.12
- [18]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19] W. K. Kim & K. H. Chung.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3), 287-296.
- [20] H. Y. Jeoung & S. Y. Kim. (2016).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involvemen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5), 531-539. DOI : 10.11111/jkana.2016.22.5.531
- [21] S. H. Kim & K. E. Lee. (2016). Predictors of turnover among new nurses using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5), 733-743.
DOI : 10.4040/jkan.2016.46.5.733
- [22] F. Y. Mohammed Al Jabri, T. K. Docent, M. Azimirad & H. Turunen. (2021). A systematic review of healthcare professionals' core competency instruments. *Nurses Health Sciences*, 23(1), 87-102.
DOI : 10.1111/nhs.12804
- [23] I. S. Jang. (2016).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3), 749-761.
DOI : 10.7465/jkdi.2016.27.3.749
- [24] S.J. Kim. (2018). Effects o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ion of nurse on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1), 1-10.
DOI : 10.7739/jkafn.2018.25.1.1

- [25] M. S. Kim. (2017).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184-193.
DOI : 10.5977/jkasne.2017.23.2.184
- [26] M. van der Cingel & J. Brouwer. (2021). What makes a nurse today? A debate on the nurs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its need for change. *Nurse Philosophy*, 22(2), e12343.
DOI : 10.1111/nup.12343
- [27] S. Y. Yun & M. S. Kim. (2014).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63-372.
DOI : 10.14400/JDC.2014.12.2.363
- [28] M. O. Jang & K. H. Chung.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biomedical ethics on their confide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1), 743-755.
DOI : 10.35873/ajmahs.2019.9.11.067
- [29] M. G. Min & S. Y. Yu. (2017). Developing of a tool for ambulatory care nurse competenc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1), 90-100.
DOI : 10.11111/jkana.2017.23.1.90
- [30] K. A. Shin & B. H. Cho.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46-56.
- [31] M. S. Seo, J. S. Park, O. K. Kim, M. H. Heo, J. O. Park & M. M. Park. (2017).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nursing competence.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2(2), 28-43.
- [32] N. Lennen & B. Miller. (2017). Introducing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nursing curricula.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 12(1), 59-61.
DOI : 10.1016/j.teln.2016.07.002
- [33] M. H. Kim, M. S. Kim, S. W. Chae & Y. S. Kim. (2007). Relationship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among hospital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2), 176-183.
- [34] D. J. Oh, C. J. Choi, B. E. Kwon & Y. H. Park. (2005).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64-72.
- [35] S. J. Shin, E. B. Yang, E. H. Hwang, K.H. Kim, Y. J. Kim & D. Y. Jung.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9(2), 76-82.
DOI : 10.17496/kmer.2017.19.2.76

박 찬 숙(Chan-Sook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윤리 (석사)
- 2018년 8월 : 건국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윤리, 성인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sook706@sangji.ac.kr